



CBS가 만든  성경 채널
알림바이블 대본집

Ep.0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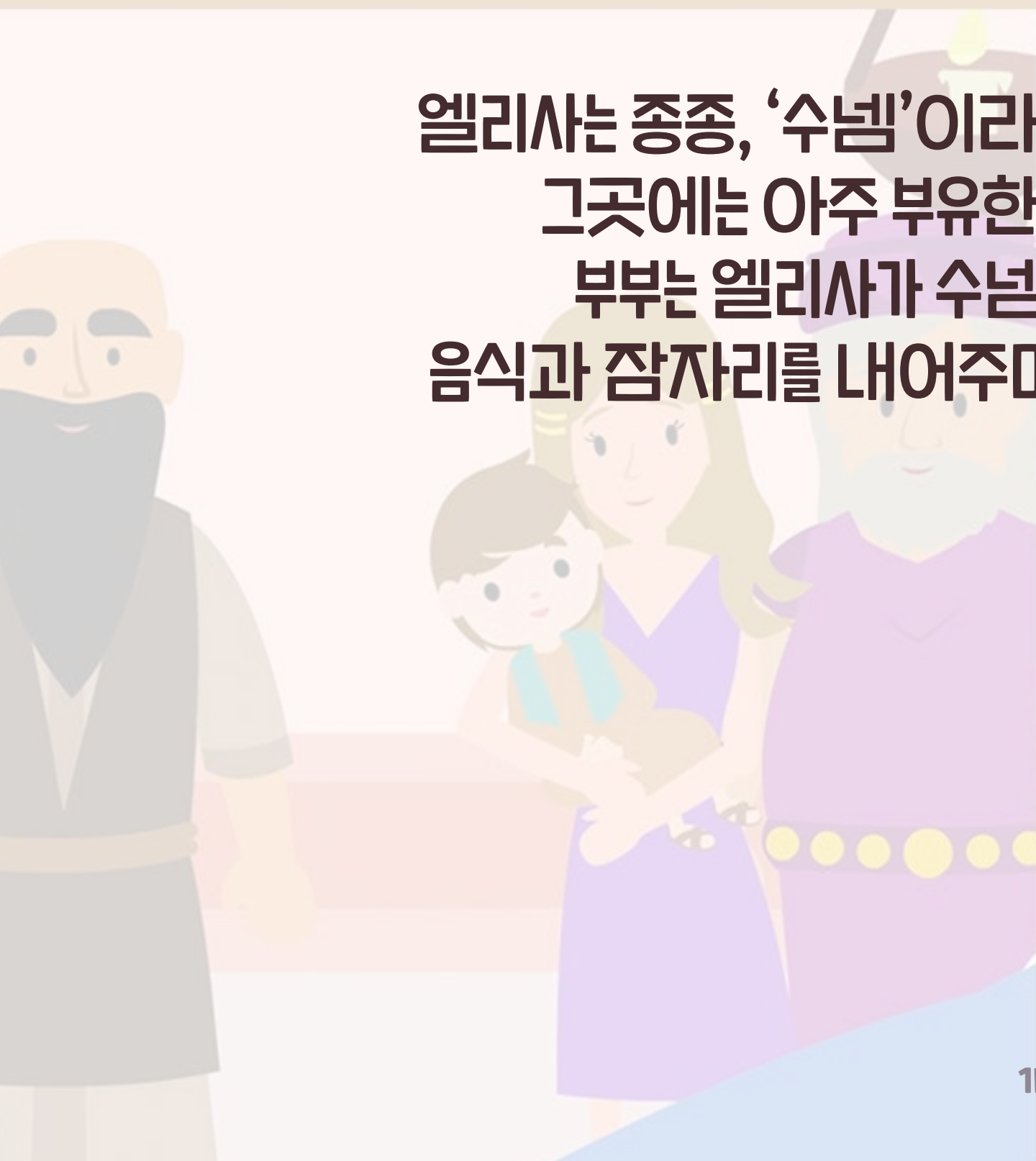
엘리사가 보여준 기적들

(열왕기하 4:8~44, 6:1~7)





여러분, 오늘도 엘리사 선지자가 보여준
놀라운 일들에 대해 들려줄 거예요.



엘리사는 종종, ‘수넴’이라는 작은 도시를 찾곤 했어요.
그곳에는 아주 부유한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부부는 엘리사가 수넴 땅을 찾을 때마다,
음식과 잠자리를 내어주며 친절하게 맞아주었죠.


하루는 아내가 남편에게 이런 말을 꺼냈어요.

**“여보, 엘리사 선지자께서 이쪽에 자주 오시는데
아예 그분을 위해 따로 방을 만들면 어떨까요?
침대도 놓고, 책상이랑 의자도 놓고, 또 등잔도 갖다 두고요!
그럼 선지자님께서 편하게 지나다 가실 수 있잖아요?”**

남편도 아내의 생각에 흔쾌히 동의했어요.



**얼마 후, 다시 부부의 집을 방문하게 된
엘리사는 깜짝 놀랐어요!**





**자신을 위해 아늑하게 꾸며진 방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친절한 부부에게 무언가 보답을 하고 싶어졌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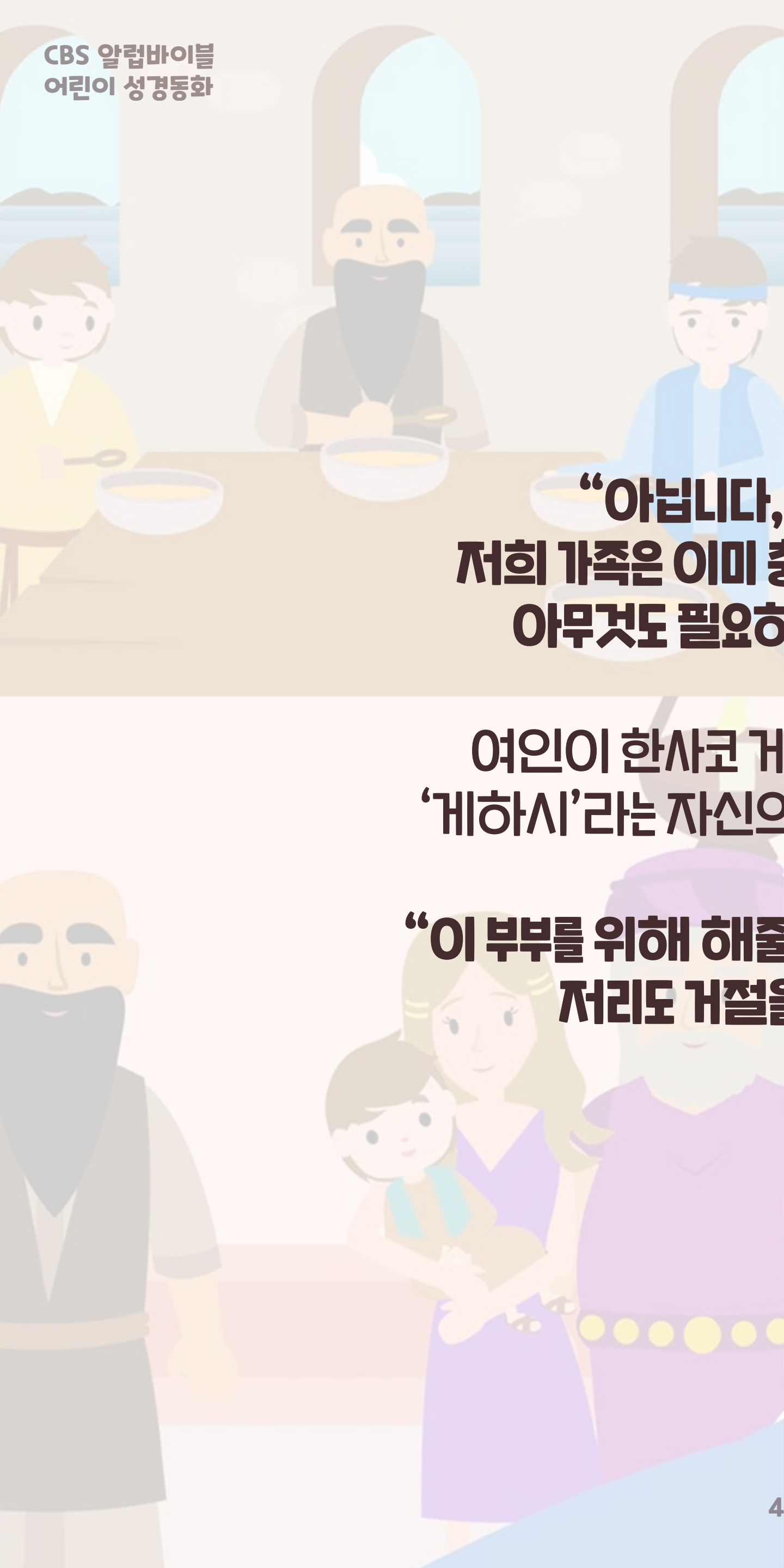
“선지자님, 저를 부르셨어요?”

**“아 예, 저기 이 집을 위해 제가 뭔가를 꼭 해 드리고 싶은데.
부인에게서 혹시 원하는 게 있으시면 말씀해 보십시오.”**





**“아닙니다, 선지자님.
저희 가족은 이미 충분히 행복한걸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인이 한사코 거절하자 엘리사가
‘게하시’라는 자신의 종을 따로 불렀어요.**



**“이 부부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게 없겠느냐?
저리도 거절을 하니 원...”**



**“선지자님 이 부부에게는 아이가 없지 않습니까?
남편도 이제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가지기가
어려울 텐데... 부부가 가장 바라는 건 뻔하지 않을까요?”**

**옳거니! 그 말을 들은 엘리사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엘리사는 곧바로 여인을 불렀고
부부가 아들을 가지게 될 거라 말해주었죠.**


**그리고 1년쯤 지나자
부부에게 정말로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렇게 아이는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랐고
이제 세 명이 된 가족은 더없이 행복한 나날을 보냈죠.


그러던 어느 날, 수넴 지역의 남자들이
추수기에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아이가 아버지를 보러 찾아왔어요.
아이는 들판을 뛰어다니며 신나게 놀았죠.

그런데 갑자기


“아이고 머리아... 머리가 너무 아파요...
머리가 깨질 것같이 아파요 아버지...!”



아버지는 깜짝 놀라서 하인을 시켜
아이를 급히 집으로 보냈어요.
집에 있던 어머니가 아이를 무릎에 누이고
정성껏 보살펴주었지만 야속하게도 아이는
몇 시간도 되지 않아 눈을 감고 말았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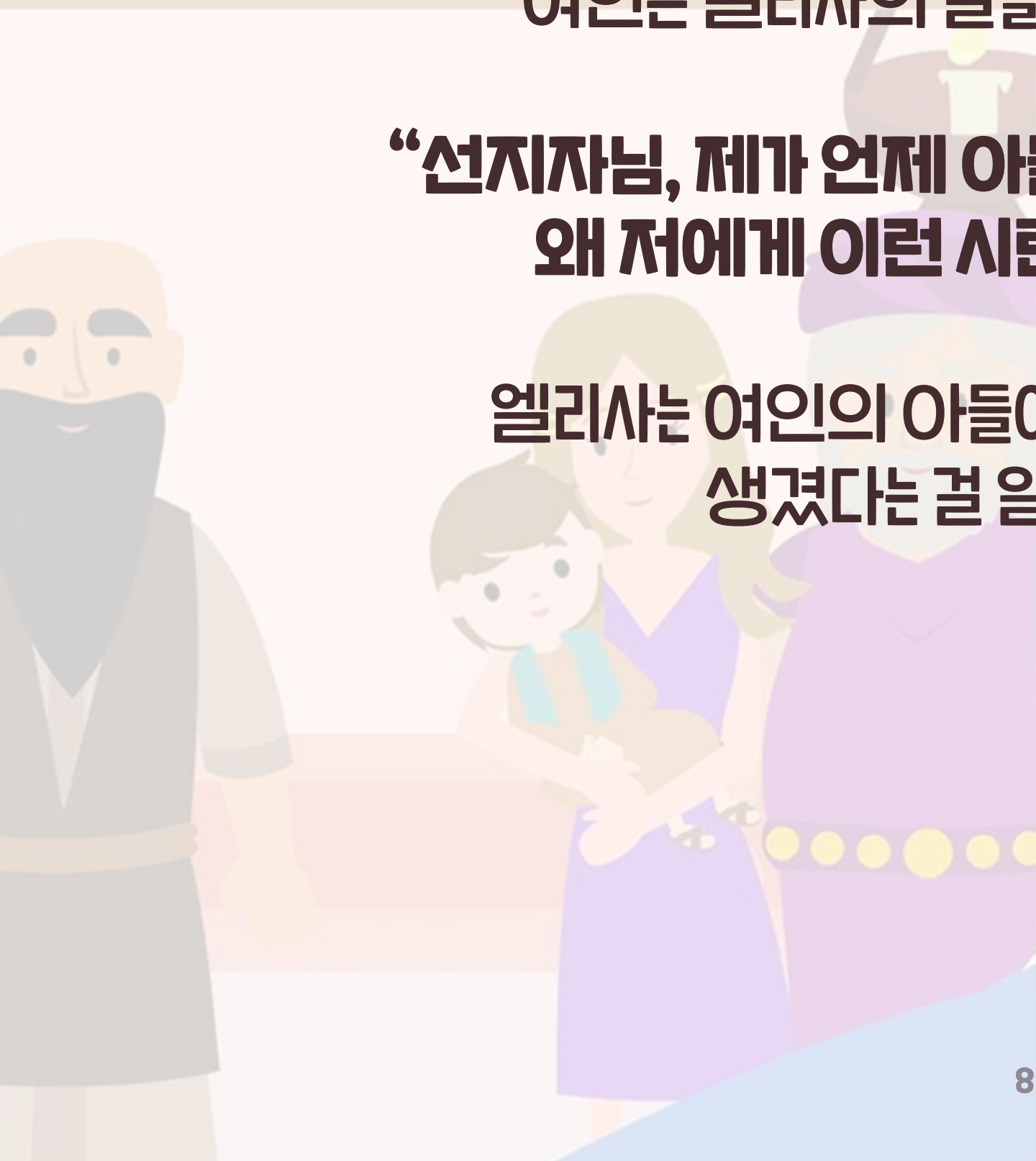


아들을 잃은 어머니는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죠.
하지만 이내 어머니는 세상을 떠난 아들을
엘리사 선지자의 방 침대에 눕히게 했어요.



그리고 직접 나귀를 타고, 하인과 함께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죠.
긴 여정 끝에 마침내 엘리사를 만나게 되자
여인은 엘리사의 발을 붙들고 울며 말했어요.

“선지자님, 제가 언제 아들을 달라고 한 적이 있나요?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흑흑...”




엘리사는 여인의 아들에게 매우 안 좋은 일이
생겼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인 ‘게하시’에게 이렇게 명령했죠.

**“너는 내 지팡이를 들고, 서둘러 여인의 집으로 가거라.
앞만 보고 최대한 빨리 수넴으로 가서
내 지팡이를 죽은 아이의 얼굴 위에 놓아두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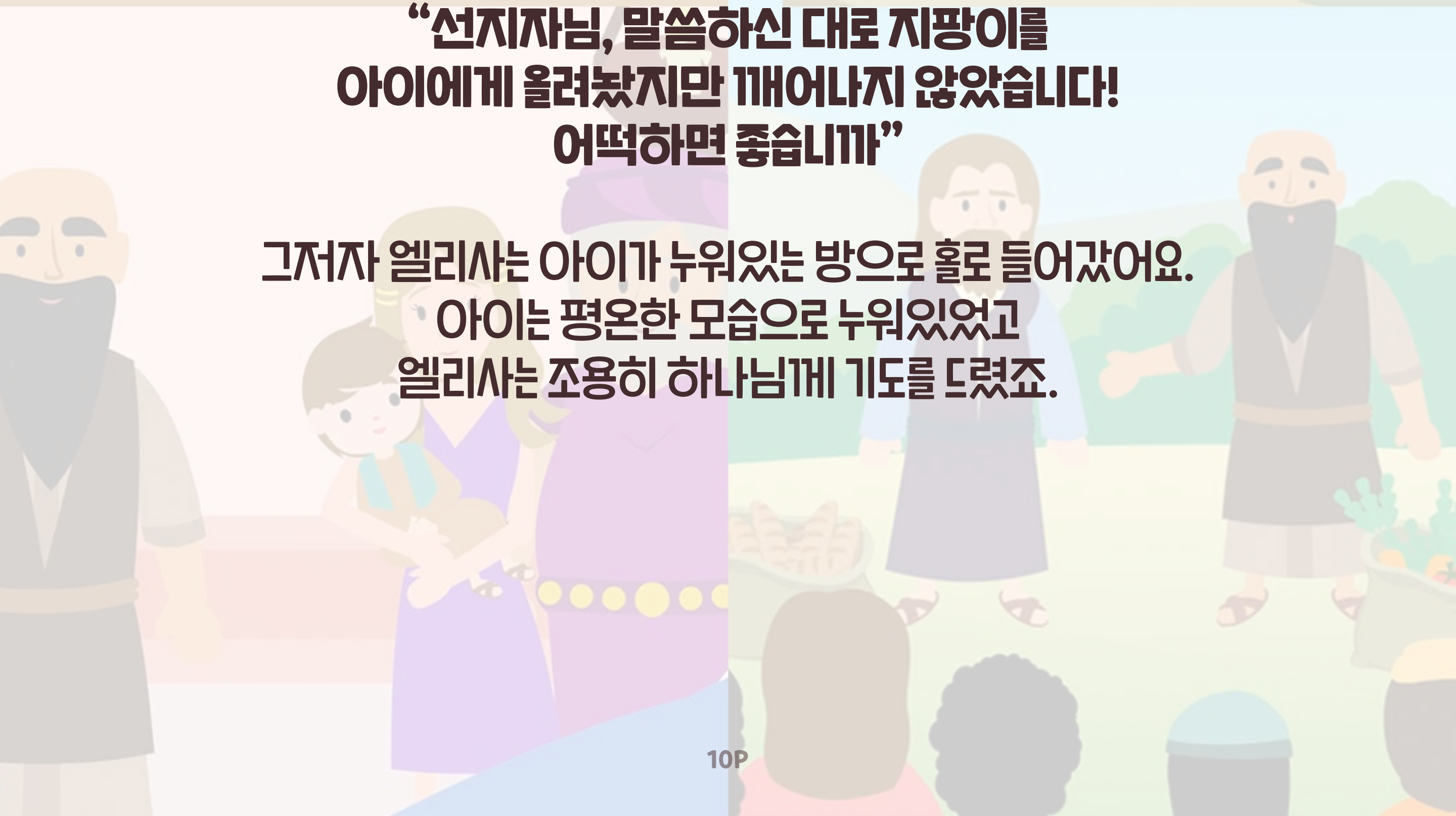
그렇게 게하시가 부랴부랴 길을 떠났지만
여인은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엘리사도 여인과 함께 수넴으로 향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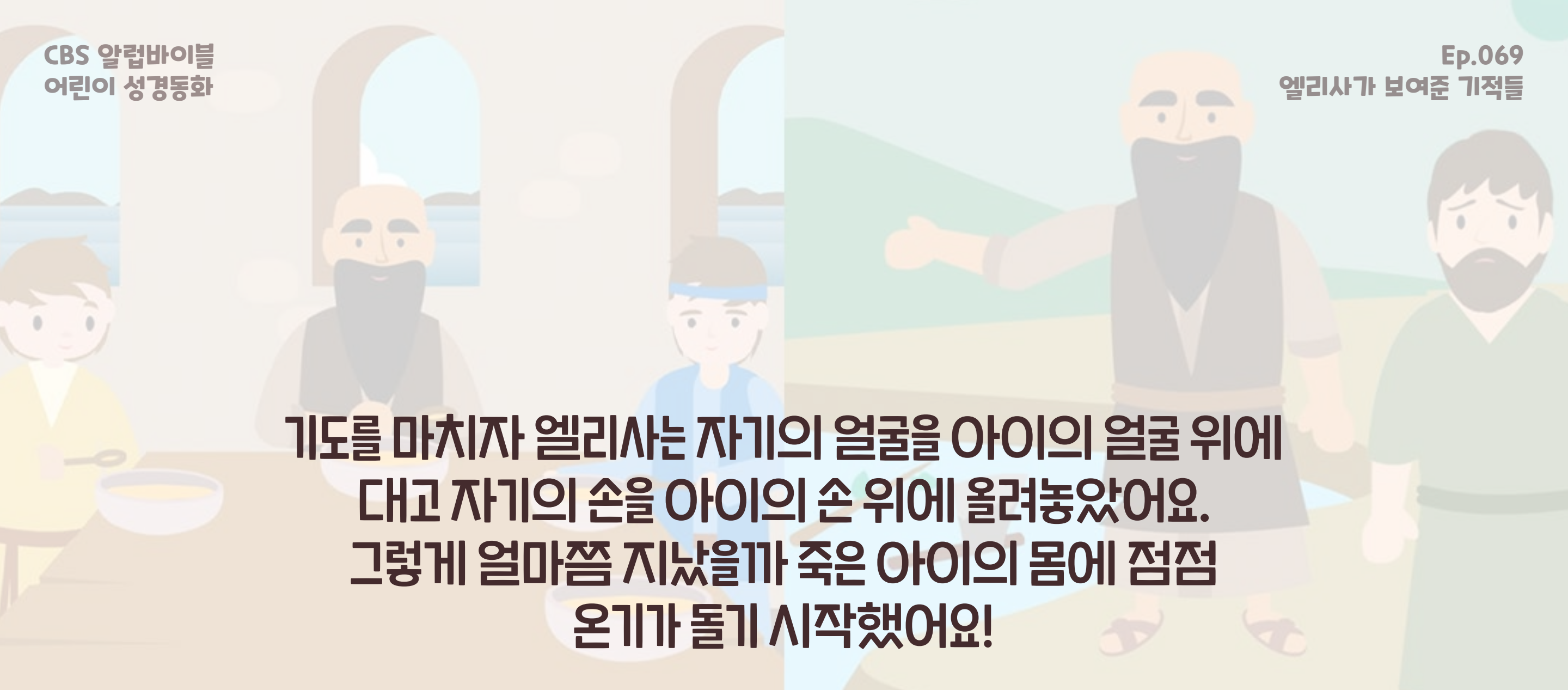
엘리사가 여인의 집에 도착했을 때
먼저 와있던 게하시가 헐레벌떡
마중 나와 말했어요.



“선지자님, 말씀하신 대로 지팡이를
아이에게 올려놔지만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떡하면 좋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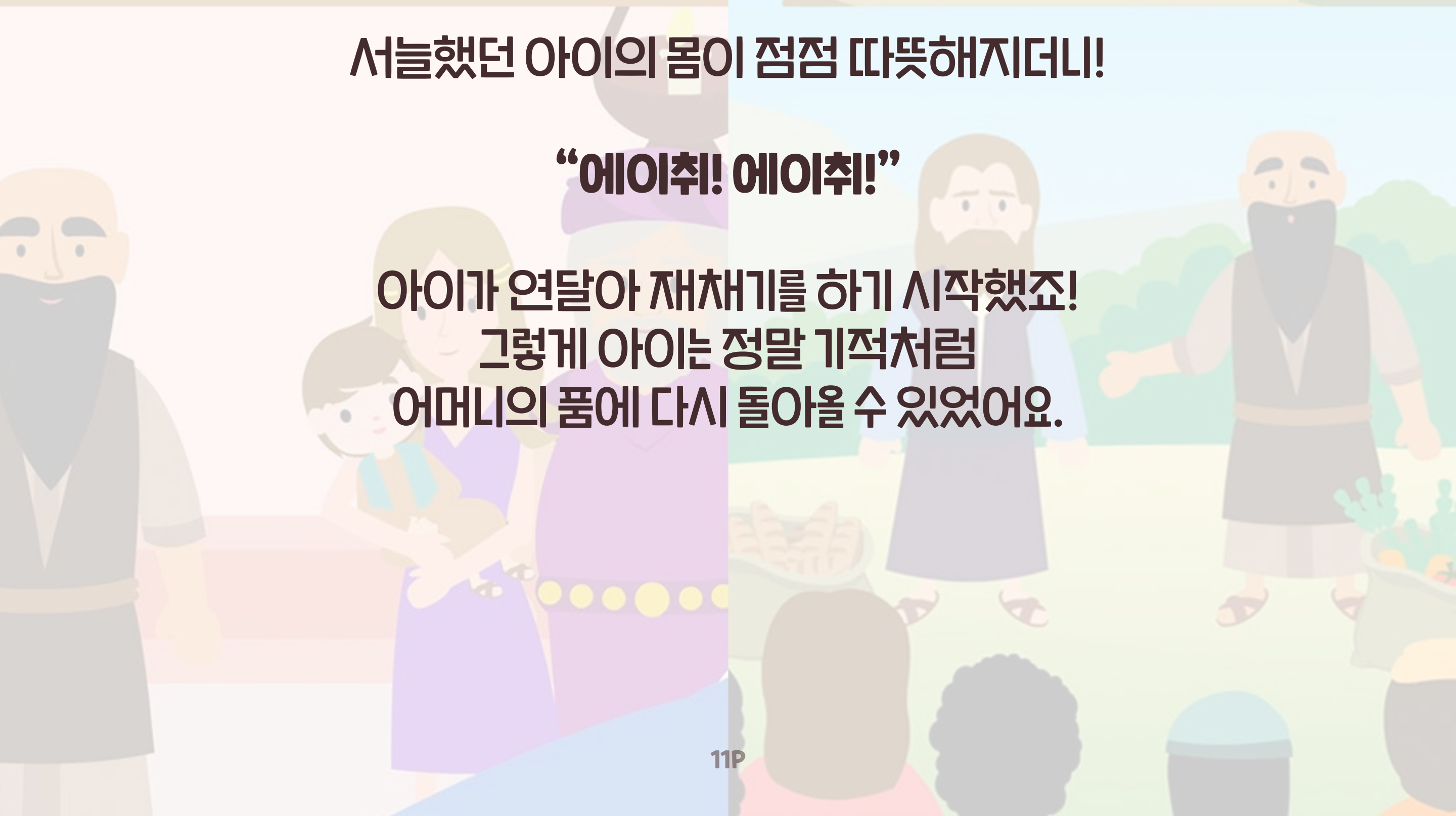
그저자 엘리사는 아이가 누워있는 방으로 홀로 들어갔어요.
아이는 평온한 모습으로 누워있었고
엘리사는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죠.



기도를 마치자 엘리사는 자기의 얼굴을 아이의 얼굴 위에
대고 자기의 손을 아이의 손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렇게 얼마쯤 지났을까 죽은 아이의 몸에 점점
온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서늘했던 아이의 몸이 점점 따뜻해지더니!

“에이취! 에이취!”




아이가 연달아 재채기를 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아이는 정말 기적처럼
어머니의 품에 다시 돌아올 수 있었어요.

어머니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엘리사는, 이 밖에도 놀라운 일들을 많이 보여주었어요.
한번은 젊은 선지자들이 모여 있는 학교에서
누군가 실수로 독이 든 들 호박을 솥에 넣어 국을 끓였어요!
모두가 다 같이 국을 나눠 먹고 있는데 한 선지자가 말했죠.**

**“국에 독이 있습니다!
저희가 독이 든 국을 마시고 있었다고요!”**



모두가 두려움에 바빠져있을 때
엘리사는 그저 평온하게 말했어요.

“가서 밀가루를 조금 가져오거라.”



그리고 잠시 후, 엘리사가 밀가루를 국에 넣었더니
놀랍게도 독이 사라졌어요.

엘리사가 말했죠.



“이제 됐다, 걱정 말고 국을 나누어 먹거라.”

그날, 국을 나눠먹은 그 누구에게도 아무런 탈도
생기지 않았어요.

또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엘리사에게 보리빵
20개와 약간의 곡식을 가져왔어요.
그곳에는 백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엘리사가 하인에게 이렇게 말했죠.

“자, 이 보리빵을 나눠주어
모두에게 배불리 먹이거라.”

**“에이~ 선지자님, 고작 20개밖에 안 되는 빵으로
백 명이 어떻게 배불리 먹습니까? 선지자님도 참...”**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먹고도 남을 것이라고 말씀 하셨다.
걱정말고 나누어주거라.”**

**하인이 엘리사의 말대로 보리빵을 나누어 주었더니
정말로 백 명의 사람들이 먹고도 남을 만큼
음식이 풍족해졌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었죠.**

그리고 또 한번은 젊은 선지자 한 명이 도끼로
나무를 베다가 그만 도끼를 강물에
빠뜨리고 말았어요.


“엘리사 선지자님 이를 어쩌면다 좋을까요?
제가 다른 사람에게 빌려온 도끼를 실수로 물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나뭇가지 하나를 꺾어서
도끼가 빠진 자리 쪽을 향해 던졌어요.
그러자 잠시 후 도끼가 강바닥에서 떠오르더니
둥둥 물 위를 떠다니기 시작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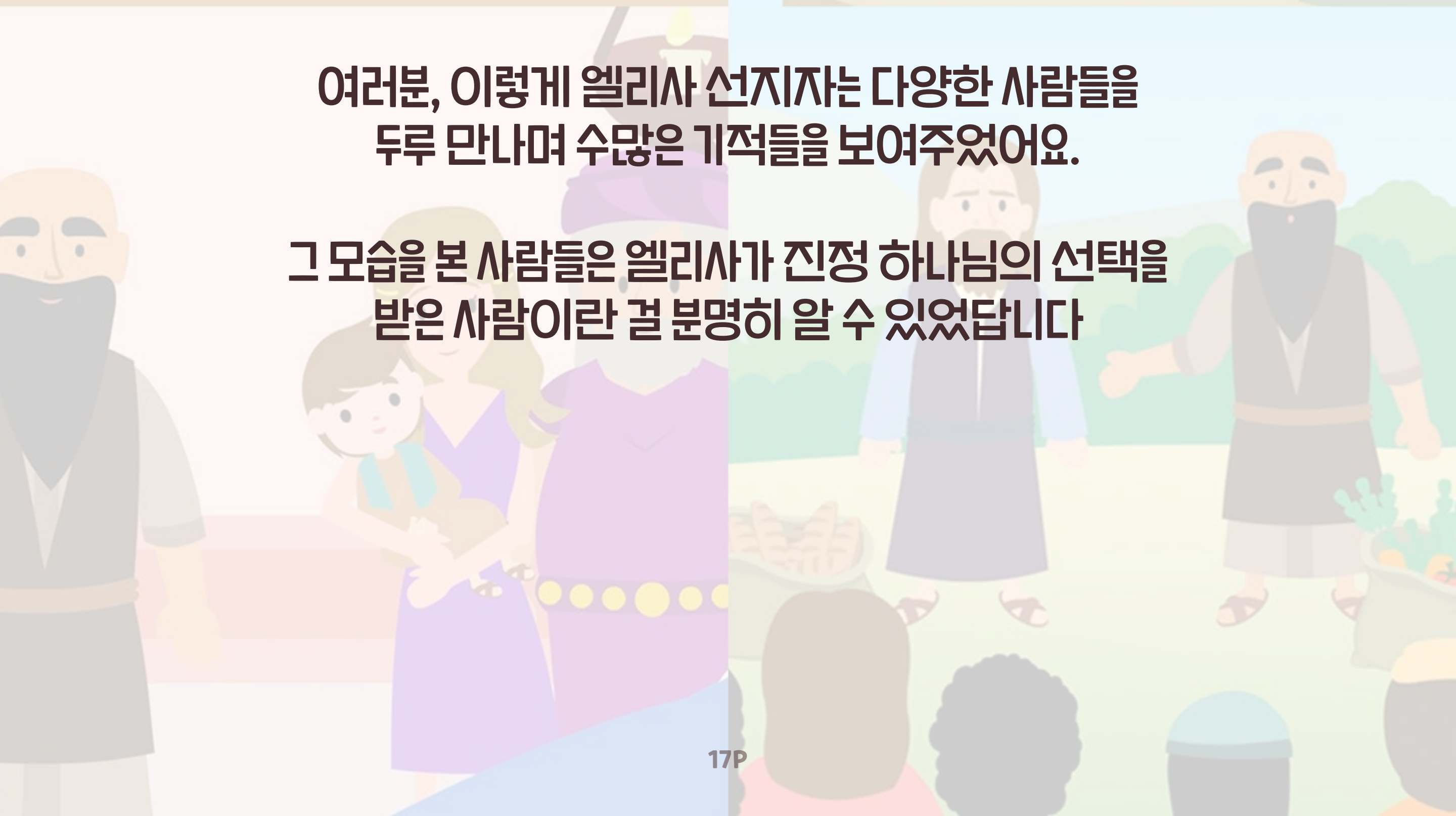


엘리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자, 울상은 그만 짓고 손을 뻗어 도끼를 건져 내거라.”



여러분, 이렇게 엘리사 선지자는 다양한 사람들을
두루 만나며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었어요.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엘리사가 진정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란 걸 분명히 알 수 있었답니다